

제 108호 스트레스 컨트롤하기: 초월형

어느 날 원로 교수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적은 연봉인상을 받았는데 과연 공평한지 저보고 옴부즈맨 자격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는 동안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마침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감정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영영 우시더군요. 얼마나 복받쳤으면 그토록 쉽게 우셨을까요.

평균보다 낮은 연봉 인상률을 지난 몇 해 계속해서 받아왔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다고 합니다. 연구 실적을 중시하는 세상이 왔는데 연구 일선에서 몰려 난지 한참 되었으니 낮은 연봉 인상률을 어쩔 수없이 인정하였답니다.

하지만 비록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없지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연구를 소규모라마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하루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뜻 있게 보낼 수 있어서 "연봉 인상률" 따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연봉제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는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퇴를 코앞에 두고 평균 이하의 봉급 인상을 받고 보니 도저히 가만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대학에 바친 30년이 모조리 평균 이하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는 것 같아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패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물론 연봉 인상률은 오직 지난 한 해 동안만의 실적을 평가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겠지만 마지막 연봉 인상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대되어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일 년이 아니고 마치 자신의 커리어 전부가 평균 이하라고 판정 받는 것 같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연봉제가 주는 심리적 부담을 초월하기가 이토록 어렵습니다. 혼자 아무리 연봉제를 초월했다하여도 그것은 아픔(스트레스)을 잠시 잊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해 조금씩 쌓이는 스트레스가 언젠가는 폭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를 가진다든지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한국에는 이제 봉급 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려합니다. 그러므로 꼭 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해도 교수님들께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제도를 착안하거나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현재의 자신에게 유리할까라는 생각만 고려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논문 한편 더 쓰기 위해 연봉제에 대한 토론회나 위원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연봉제가 한번 실시되면 돌이킬 수 없게됩니다.

교수님들을 한통속에 넣고 하나의 잣대로 상대 비교하는 식의 실적평가제와 연봉제는 가능한 피하십시오. 획일화는 모두의 기를 죽이는 삭막한 패러다임입니다.

연봉제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괴물로 디자인되지 말아야 합니다. 봉급이라는 경제적 시스템과 인센티브라는 심리적 시스템은 서로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하겠습니다.

© 조벽, 2001